13강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1. 보드리야르와 유하

1.1 문명의 빛 반대편에 서려는 시인의 의지

◇ 차를 몰고 가다 하룻밤 머무는
생수처럼 차분한 에비앙이라는 마을,
물안개 자욱한 저녁 호반의 벤치에 앉아
레만 호를 바라본다
멀리 수정처럼 반짝이는 도시 로잔의 불빛,
내 삶은 언제나 가교가 놓이지 않은 이편의 호숫가를 배회해왔다
그것이 나의 불행이라면 불행일 터
알프스를 넘어온 별들이여, 그 옛날
절름발이 시인 바이런이 노래한 하늘의 시여
이방의 언어와 한 세기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다 한들
그 무슨 번역이 필요하겠는가
알바트로스의 날개를 타고
나 역시 여기까지 날아온 것이다
부와 명예 또는 권력, 가족이라는 굴레
그 모든 욕망이 나를 부른다 해도
절름발이를 태운 알바트로스는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한다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불행이라면 불행일 뿐
한때 내 마음의 절뚝거림이 어색하게 부유하던
호반 저편의 불야성을 뒤로한 채
물비린내처럼 사십대는 오고
내 불구의 유일한 가교인 무지개
그리고 먼 곳의 아내여, 내 이 세상에 와서 얻은 건
사랑과 늙음, 오직 그 두 가지였나니
나 잠시 호숫가 저녁 벤치에서 지친 날개를 접고
그래 내 절름발이 영혼을 기대고
저 레만 호의 크기만큼 울고 싶구나-「레만 호에서 울다」『천일馬화』

◇ 보드리야르와 유하를 함께 보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진다.

◇ 유하는 욕망의 집어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네바(Geneva)호라고도 불리는 레만(Leman)호를 찾는다.

◇ 보들레르는 자신을 선원에게 능욕당한 알바트로스에 비유한다. “폭풍 속을 넘나들며 활잡이를 비웃는/ 이 구름의 왕자를 닮은 것이 바로 시인./ 땅 위로 쫓겨나 놀림당하는 마당에서는,/ 그 거인 같은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하다니.”(「알바트로스」)

◇ 유하는 1823년 그리스 독립군을 도우러 갔다가 1824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던 바이런을 찾아 나선다.

→ “맑고 고요한 레만 호수여, 너는 얼마나/ 내 살아온 어지러운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가.”(「맑고 고요한 레만 호수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 사물의 네 가지 가치

2.1 사물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교환의 논리

◇ 기호와 차이의 논리인 소비의 논리를, 보통 명증성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그 논리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논리들과 구별지을 필요가 있다. 네 가지 논리가 논쟁의 대상일 것이다.

ⅰ) 사용가치use value의 기능적 논리, ⅱ) 교환가치exchange value의 경제적 논리, ⅲ) 상징적 교환symbolic exchange의 논리, ⅳ) 가치value/기호sign의 논리.

첫 번째는 실제적인 작용의 논리이다. 두 번째는 등가equivalence의 논리이다. 세 번째는 양면성ambivalence의 논리이다. 네 번째는 차이의 논리이다. 또한 유용성의 논리, 거래의 논리, 증여의 논리, 신분의 논리. 물건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입각하여 정돈됨에 따라 각각 '도구', '상품', '상징' 또는 '기호'의 지위를 취한다. 마지막 것만이 소비라는 특수한 영역을 규정짓는다.『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 우리의 미적인 판단력과 자유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자기 생산을 위해 허용된 것이다.

◇ 보드리야르는 내 앞에 놓인 사물에 대해 숙고하면서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한다.

◇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어떤 사물이든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아름다운 옷을 예로 들어보자. 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사용가치). 혹은 그 옷은 다른 것과 교환될 수 있는 가치, 즉 화폐로 표시되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교환가치). 또 그 옷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서 함부로 입을 수도 혹은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는 두 사람만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상징가치). 마지막으로 그 옷은 자신의 부유함과 행복함을 과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기호가치, 혹은 소비가치).

3. 선물의 가치

3.1 상징적 교환의 망각으로부터 소비논리의 탄생으로

◇ 선물에 의해 가장 근사하게 예증되는 상징적 교환에서, 물건은 객체가 아니다. 물건이 교환되는 구체적 관계, 두 사람 사이에서 물건에 의해 굳어지는 양도 계약과 물건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체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용가치도 경제적 교환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 증여된 물건은 상징적 교환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선물의 역설이다. 선물은 동시에 임의적이다(상대적으로). 어떤 물건이건 증여되기만 하면 관계를 충분히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물건은 증여되자마자-그리고 증여되기 때문에-선물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선물은 유일성을 지니며, 교환의 유일한 순간에 의해 명확하게 한정된다. 선물은 임의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특이하다. (…) 물건-기호는 스스로 밑받침하는 관계 속에서 묵살되고 바로 그렇게 해서 (선물의 경우처럼) 상징적 가치를 띠는 대신, 다른 것에 작용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불투명한 것이 되며, 동시에 관계의 폐지를 분명히 표시하기 시작한다. 물건-기호는 더 이상 두 존재 사이의 빈틈에 대한 그 불안정한 기표가 아니다. 물건-기호는 사물화된 관계의 성질을 띤다(다른 면에서 상품이 사물화된 노동력의 성격을 띠듯이). 상징이 잠재적 욕망 관계처럼 결여(부재)를 가리켰던 바로 거기에서, 물건-기호는 관계의 부재만을, 그리고 따로 떨어진 개별적 주체들만을 가리킨다.『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 내가 타자에게 건네준 것은 선물 아니면 뇌물로 분류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선물에서는 사용가치나 경제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상징적 교환가치만을 가진다.

◇ 한 송이의 꽃, 흔한 조약돌은 선물이 되지만 뇌물은 되지 않는다.

◇ 보드리야르는 선물로 받은 것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물건 - 기호'라고 규정한다.

4. 교환될 수 없는 교환

4.1 교환될 수 없는 교환, 불가능한 교환을 꿈꾸며!

→ 보드리야르에게 있어 상징적 교환◇ 모든 것을 위해 이유·원인·궁극 목적성을 발견하는 것은 교환의 방식이다. 이 환상이 작동하려면, 모든 것은 어디에선가 지시 대상이나 등가물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치의 항으로서 교환의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이와 반대로 교환되지 않는 것은 과장해서 말하면 바타이유에 의해 저주받은 부분이 될 것이다. -- 그래서 그것을 축소시켜야 한다. 나로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교환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한다. (…) 극단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세계 자체에 관한 이런 사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보면 세계는 아무데서도 등가물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세계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로서 평가되고 비교되고 측정될 수 있는 외적인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인가 명명되고 코드화되고 계산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교환의 순환을 다시 발견한다. 그 순간부터 '저주받은 부분'은 가치가 된다.『암호』

◇ 보드리야르에게 있어 상징적 교환의 논리는 소비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 선물로 대표되는 상징적 교환 논리를 '불가능한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통용되는 세 가지 교환의 논리를 전복하려 한다.

→ 『불가능한 교환』(2001), 『암호(Mots de passe)』

◇ 교환될 수 없는 것을 타자에게 선물로 줄 때, 우리는 교환이 아닌 교환, 혹은 불가능한 교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5.1 자전거에서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구를 예감하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나를 움직이는 연료는 침묵이요
나의 엔진은 바람이요
나의 경적은 휘파람이다
나는 아우토반의 욕망을 갖지 않았으므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여 목적지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아무것도 목표하지 않는다
목표하지 않기에 보다 많은 길들을
에둘러 음미한다
나는 늘 途中에 있다
나는 샛길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길의 선지자이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아웃사이더이다
아웃사이더의 서정이다
숲으로 난 샛길을 사랑하는 산책가의 몸이다
그러므로 나는 추억보다 느리게 간다
나를 무수히 추월해간 지상의 탈 것들이여
어쩌면 목적지란 시간의 종말이 아닌가
나의 시간은 무한한 곡선,
은륜의 텅 빈 내부로 물이 고이듯 시간이 머문다
샛길의 시간은 무익하여,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 무익한 시간들을 벗 삼아
유한한 삶에 대한 명상을 충분히 할 것이다
산책가는 늘 길 뒤편에 남아 있다
풀잎 하나 사소한 흔들림에도
생의 시간을 확장시키며-「나는 추억보다 느리게 간다: 자전거의 노래를 들어라2」『천일馬화』

◇ 유하는 욕망, 목적, 그리고 목표로부터의 자유를 압구정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로 제안하고 있다.

→ 이런 감성을 회복함으로써 유하는 압구정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삶과 욕망을 새롭게 긍정하게 된다.

→ 그 결과 자전거를 타고 만나는 모든 사소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삶마저도 하나의 신적인 것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